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유란	학번	
이메일	k.yuran.0919@gmail.com		

대학원명	Duke University / MIDP program (1-year)	미국
기 간	1년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22일

신 청 인 : 김유란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 듀크 대학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정착 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음카페 NC KOREAN (<https://cafe444.daum.net/c21/home?grpid=17rMq>)
- 본인과 남편, 그리고 6개월 아기와 함께 출국하였기 때문에 정착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와 생활집은 KDI 선배를 통해 8월경 미리 연락하여 무빙을 받기로 하였으며, 집은 사전에 계약을 해두고 새로운 집으로 바로 이사를 하였음 (무빙은 이사 다음날 받음)
- 초기 정착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관계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처리하고 갔으며 (인터넷, 세입자 보험 가입, 전기 연결 등), 무료 해외전화 어플을 설치하여 전화로 처리하였음
- 1월 7일이 정식 개강이었으나 12월 중순에 입국하여 학기 시작 전 충분히 정착 시간을 가졌던 것이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귀국 시점을 고려한다면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듀크 대학교는 학생 학업생활 및 사회생활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임을 느낄 수 있었음
- (글쓰기 전담교수) 듀크 대학교의 가장 좋은 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MIDP 프로그램에 특화된 영어 전문 교수님이 있다는 점임. 외국인만을 위한 교수님은 아니고 미국학생들도 글쓰기와 프레젠테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 교수님에게 면담요청을 하곤 하는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경우 중요 페이퍼는 전담 교수님과 사전에 면담하여 보고서를 발전시킬 수 있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점 중에 하나였음
- (교육의 질) 공부를 위한 소스(Source)는 정말 많이 제공하는 학교이며, 사립학교답게 학업에 필요한 학술자료 지원 뿐만 아니라 도서관, 유료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 등등 물리적인 지원도 매우 많은 편임.
- (외부활동) 외국인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음. 코로나 이전에는 Potluck Party, 언어 교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외국인 친구 뿐 만 아니라 외국학생에 관심이 많은 현지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음. 남편도 배우자 자격으로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지 학부생과 주기적으로 만났음. 코로나 이후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만날 기회가 적어진 것이 매우 아쉬웠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 (강의) MIDP과정은 특히 재정과 조세 쪽에 특화되어 있어 이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수업을 선택하기 훨씬 재미있고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은 환경 정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MIDP 과정의 수업과 병행하여 환경대학원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였음. 타 대학원 수업을 교차 수강

하는 것에 매우 관대한 편이며, 만약 타 대학원에서도 본인의 연구 주제와 일치하는 수업을 찾기 어려우면 교수님을 따로 섭외해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3학점 인정). 정해진 강의만 듣는다면 본인의 관심사와 잘 맞지 않는 수업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나, 타 대학원 및 개별 연구 (Independent Study)를 활용한다면 자신의 연구주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기 좋음.

- (KDI 강의와의 연계성) 통계수업의 경우 KDI 수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거의 수강했음을 전제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관련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미/거시는 KDI에서 듣고 가는 것을 추천.
- (학기별 학점배분) 보통 봄학기 4과목, 여름학기 2과목, 가을학기 3과목을 추천함. 본인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여름학기 수업들이 모두 취소되고 Independent Study로 수강하도록 권고되어서 본인은 부득이하게 3학점만 수강하였음. 그 여파로 가을학기를 4과목 수강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힘든 일정이었음. (특히 학기 끝나자마자 귀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말 힘들...)
- (논문과 지도교수) 지도교수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됨. 본인의 경우 입학당시 학교 생활 전반에 조언을 주는 Advisor Professor와 논문 지도교수가 같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논문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음. 코로나로 인해 논문 발표가 취소되어 다른 해보다 논문심사 준비가 수월했다는 평이 있었음. 논문 작성을 준비하기 위해 봄학기에 한 달 가량 금요일마다 세미나가 열림. (하지만, 세미나에서 속성으로 배운 내용보다는 가을학기에 정책분석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하게 되었음)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한국인들은 대부분 캐리, 채플힐, 또는 북부 랄리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을 고려한 선택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은 아이가 어려 학군을 고려하지 않고 더럼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
- 렌트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했으며, 마트가 도보 5분 / 대형 쇼핑몰이 도보 15분 / 소아과 차로 5분 거리에 있고, 트레일이 아파트 단지와 연결되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편하게 생활하였음.
- 더럼의 치안에 대해 정착 전에 고민이 많았으나, 살아보니 다운타운이 아니면 치안은 매우 안전한 편이었음.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의료보험과 병원) 아기가 6개월일 때 출국하여 소아과 방문할 일이 많을 것 같아 본인과 아기는 학교 의료보험을 가입함. 미국에서 6번 가량 소아과에 방문하였고, 학교 보험의 명성(?) 덕분에 소아과 방문 시 자부담은 거의 없었음 (웰키즈 체크업 무료, 예방접종 무료, 응급실 자부담 발생). 주치의는 한국계 미국인 선생님이로 일부러 골랐으며, 덕분에 의사소통이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음. 출국 전에 예방접종 기록을 영문으로 준비해갔고, 영유아 검진 결과표를 영어로 번역해감.

- (코로나 이후의 병원) 본인이 다녔던 소아과는 코로나 이후 유증상자 병원과 웰키즈 체크업을 위한 병원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며, 오히려 코로나 이후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개별 진료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었다. 다만, 열이 나는 경우 무조건 방문은 금지되고 화상이나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했음.
- (코로나 검사) 듀크 대학교는 전학생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의무로 시행하였음. 한국과 달리 셀프 검사로 본인이 본인의 코를 후비는(?) 수준의 검사임. 학교 외의 사설 약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로 셀프 검사임. 비용은 무료이나, 미국내 의료보험이 있어야지만 무료임. (독감 백신도 미국 의료보험이 있어야지만 무료이며,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간 남편의 경우 백신 비용으로 70불을 지출함)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음. 듀크 대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자본력이 막강한 사립대학의 힘을 느낄 수 있었음. 주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려도 학칙에 따라 전학생 온라인 수업을 강행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지침이 요동을 칠 때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등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귀국한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 메일이 발송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 차원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산과 바다가 모두 있는 미국에서 흔치 않은(?) 주로 멀리 여행을 가지 못했지만 주립공원과 주 내 명소들을 단기간으로 다니기만 해도 충분히 즐거운 생활이었음. 식재료도 덕분에 매우 풍부해서 다양한 해산물과 과일을 사시사철 즐길 수 있었음. 서부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렌트비 등이 월등하게 저렴하여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음. 다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 아주 별로일 수 있는데...대형 아울렛도 거의 없고, 아울렛에도 코치와 토리버치가 최상위 브랜드인 수준임.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 비자 발급의 경우 대행업체 없이 진행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는 대사관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아도 됨. (다만 모든 서류는 갖춰서 가져가야 함). 학교 측에서 I-20도 워낙 빨리 발급해주었으며, 현재 듀크대 학사지원부에 한국인 직원분이 근무 중이므로 한국어로 소통한다면 학교 측 서류는 처리하기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임. 그 외 코로나 이후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 (출입국) RDU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환승편 밖에 없음. 입국 심사는 최초 미국에 떨어지는 공항에서 받게 되며, 이 때 짐을 모두 찾아 짐검사를 다시 받고 탑승해야 함. 입국 수속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아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나와 가장 오래 걸렸음에도 2시간가량으로 끝났음. 코로나

이후 입국심사 상황은 알 수 없음. 다만, 한국으로 출국하는 비행기편을 탔을 때 아틀랜타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은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이 폐쇄된 상태였음. 대신 국내선 터미널은 모든 식당이 열려 있었음...

- (정착 대행서비스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양하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유명한 곳이 2~3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 본인은 정착 대행 서비스 없이 정착하였음. 입국 시 공항에서 집까지 이동과 무빙 짐 이동을 대행으로 맡겼었는데, 그다지 좋은 경험이 아니어서 귀국시에는 차를 렌트하여 공항까지 이동함. 은행의 경우 BOA 한국 부지점장님이 유명하 신데 초반에 은행계좌 개설 업무 할 때 통역해주시는 정도의 역할임.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유용하였음.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1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시점부터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본인의 우선순위와 니즈를 잘 파악해서 학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듀크대의 경우 사시사철 좋은 날씨, 저렴한 생활비, 학업을 충실하게 서포트 해줄 학교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하지만, 쇼핑, 명소 방문, 논문 부담없는 편한 학교 생활 등을 원하신다면 다른 학교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